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윤성근¹⁾ 한여울²⁾ 이승진³⁾
이은별⁴⁾ 이주희⁵⁾ 임소정⁶⁾ 양은주[†]

본 연구는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 서구의 애도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가 이뤄지거나 애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 자살 유가족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질적 메타요약을 적용하였다. 질적 메타요약은 여러 질적 연구결과들을 축약 진술문으로 종합하고 축약문들의 빈도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영역에서의 주요 주제들을 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DB 검색을 통하여 총 13편의 관련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총 948개의 진술문과 50개의 축약진술문을 산출하였다. 이를 Worden의 과업 모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빈도효과 크기가 높은 축약진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특성들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적 함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 유가족, 애도경험, 질적 메타요약, Worden의 과업 모형, 사회문화적 요인

-
- 1)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adliblife99@naver.com
 - 2)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박 통합과정, E-mail: olivebird352@korea.ac.kr
 - 3)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sjinslife@daum.net
 - 4)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박 통합과정, E-mail: vivid30822@naver.com
 - 5)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E-mail: ljh5034@gmail.com
 - 6)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E-mail: imsojeong@korea.ac.kr
- † 교신저자: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02-3290-2865, E-mail: yange@korea.ac.kr

인간의 삶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은 죽음이다. 허나 이 의심할 수 없는 필연적 사건을 매일의 삶에서 의식하며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절과 상실, 소멸의 의미를 지니는 죽음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전경으로 떠오르는 계기는 대부분 주위 누군가의 죽음을 겪었을 때이다(Kim, 2010). 가까운 누군가,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이 지니는 그 절대적인 특성에 대해 마주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인지적 반응들을 동반하는 애도(Grief)를 하게 된다. 애도를 하면서 개인은 슬픔, 우울감, 절망감, 불안감, 죄책감, 분노와 적개심, 즐거움의 상실, 외로움과 공허함 등의 정서적 반응들과 초조함, 피로감, 울음, 사회적 철수 등의 행동적 반응들, 식욕감소 및 불면, 활력의 상실과 소진, 신체 증상, 약물복용 등의 신체적 반응들, 고인에 대한 과몰입되거나 침습적인 사고, 낮은 자존감, 무력감과 무망감, 비현실감, 기억 및 집중 문제 등의 인지적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다(Kissane, 2004; Parkes, 2001; Stroebe & Schut, 2010). 이러한 애도는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보고되는 보편적 반응들로 생물학적 유산과 종(Species)의 생존이라는 견지에서 일부 동물 중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Rosenblatt, et al., 1976).

한편, 관계의 결락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써 애도는 그 공통되는 속성이 가지는 면적만큼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반응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화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특정 방식들을 공유(Catlin, 1993; Stroebe & Schut, 2010)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하에 애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 허나 현

대의 애도와 관련한 대부분의 학문적 이론과 모형들은 서구사회에서 연구되어 왔고, 이들은 서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요인들의 전제 하에 발전하였기 때문에 일부 문화에서는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애도 반응에 대해서 병리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관점에서 애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Beder, 2004; Catlin, 1993; James & Gilliland, 2001; Robben, 2004; Rosenblatt, 2008; Rubin, et al., 2012; Stroebe & Schut, 2010).

애도는 앞서 기술한 바 있는 일반적인 애도 반응과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 또는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후자는 반응의 기간 및 강도의 측면에서 세분화되고, 보다 심각한 증상들을 수반한다(Prigerson, 2004; Shear & Smith-Caroff, 2002) 이들은 일반적인 애도보다 부정적인 정서들을 보다 자주, 강렬하게 경험하고(Barrett & Scott, 1989; Hogan, et al., 2001; Parkes, 1993), ‘절망’이라는 독특한 하위 요인을 포함하며(Hogan, et al., 2001; Toedter, et al., 1988), 넓은 범위의 기능적 손상과 정신 병리적 특성들과 관련이 높은 것(Prigerson et al., 1995; Boelen & van den Bour, 2003)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심각하고 위험한 증상들이 뒤따르는 애도 반응과 관련한 위험요인으로는 갑작스러운 또는 예기치 않은 외상적 상실, 대인관계 갈등,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과거력과 가족력 등이 보고되고 있다(Melhem et al., 2003; Niemeier & Burnett, 2001),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외상적 상실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

건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우울 및 불안장애의 이력 등은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외상적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비애와 같은 중증의 애도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바로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가족의 죽음이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노화나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죽음은 그의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이라는 사건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충격과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경험하는 고통감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게 되며, 그 괴로움이 사회나 직업,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는 복합 비애의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하였다(Breslau, et al., 1998; Chentsova & Zisook, 2005; Han, et al., 2016; Jang, 2009; Prigerson & Jacobs, 2001 Ruenson, & Asberg, 2003).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살 유가족의 애도는 일반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자살 유가족이 소속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족의 자살에 대한 유가족의 반응과 과정에서 구별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고, 자살 유가족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Lee, & Choi, 2015; Shields, et al., 2017). 일례로, 한국과 유교 및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에서 진행된 Tzeng 등의 연구(2010)에서 자살은 단지 삶을 끝내기로 선택한 개인의 행동이라는 의미를 넘어 유교적 맥

락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로 평가되고, 고인과 유가족들 간의 연결성을 전제로 가족들 전체의 잘못이라는 낙인이 되는 사건이 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보다 깊은 수준의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일하게 대만 자살유가족 대상의 연구를 진행한 Hsu 등(2010)은 고인과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별 후에도 유대가 이어지는 것이 서구권에서는 병리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관계적 전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사별 후에도 고인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편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들어 서구권에서도 고인과의 새로운 유대를 맺는 것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서구권에서는 고인에 대하여 개인 내적인 표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강조(Klass & Goss, 1999)하는 반면, 동양권에서는 보다 실재하는 존재로서 현재의 유가족들과 연결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을 비교한 연구에서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인도와 영국 사회에서의 애도 반응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Laungani의 연구(1995)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공간과 경계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족의 사별 문제가 일차적으로 외부에 의해 침범되지 않을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개인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성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개인의 행동은 사회의 기준이라는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가족의 사별 문제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전체 문제로 인식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미국과 스페인 자살 유가족들의 애도 반응을 비교한 Catlin의 연구(1993)에서도

스페인 유가족들이 미국의 자살 유가족들에 비하여 자살한 가족과 보다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건 직후에는 자기존중감에서 보다 큰 손상을 경험하였지만 기존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가지고 대인관계 차원에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권이라는 맥락에 의하여 이후 애도 과정에서는 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현세적 삶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와 젊음과 건강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물질적 부의 확대와 성장을 거친 사회적 배경(Kim, 2010), 집단주의 문화권(Park, & Kim, 201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개인주의 문화 성향의 서구권 국가들과는 애도 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 행동의 동기와 원인에 대한 귀인, 대인관계 방식, 정서 경험 및 표현 등 해당 문화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의 반응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성향에 관한 Cho(200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동양의 유학 사상이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인적 성과가 아닌 내집단에서의 관계가 우선시 되고, 사회구성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관계, 특히 일차 집단인 가족으로 인식된다. 또한 개인의 내적 속성에서 원인을 찾는 성향주의 편향(Dispositionalist Bias)이 아닌 관계 속에서 내포된 역할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고, 사회적 인 압력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찾는 상황주의 편향(Situationalist Bias)과 성공 사건에 대해서는 외적요인으로, 실패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 부족 등으로 내부 귀인을 하는, 자기고양 편향(Ego-enhancing Bias)과 반대되는 겸양 편향(Modesty Bias) 양식을 나타낸다. 개인보다 타인이나 집단의 관심을 우선시하고 집단에서의 소속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적 용인 추구의 동기가 높고, 내적 욕구나 목표를 통제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을 강조하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양보와 중재를 통하여 해결, 회피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타인을 일차적인 참조대상으로 하기에 통합적 정서(Integrating Emotion)인 동정, 공감, 수치심 등의 감정이 권장되고, 자부심과 분노와 같은 분화적 정서(Differentiating Emotion)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자기 억제와 자기 부적 측면의 발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적 특성과 부적 감정에 더 민감하여 수치심, 슬픔, 애처로움, 안타까움 등의 부적 감정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 성향은 애도 경험 과정, 특히 사회적인 관계와 맥락 하에서 자살 유가족들이 가족의 자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대처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 한 해에만 자살자가 12,463명으로 추정되고 있고(MHW, 2019), 한 사람의 자살자와 관련된 자살 유가족을 최소 5-10명으로 추산하였을 때(WHO, 2008) 한 해 대략 6만 명에서 12만 명의 자살 유가족을 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과 2014년 각각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각 시와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후예방(Postvention)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

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사별 및 애도 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이뤄져야 하나 한국의 자살 유가족과 관련한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등장하기 시작하였고(Kim., & Byeon, 2016), 자살 유가족과 관련한 학문적 용어들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으며(Kim, 2010; Kim., & Lee, 2006; Kim., & Pang, 2013; Lee, 2014), 특히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애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기존의 이론과 모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개관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자살 유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한 Kim 등의 연구(2016)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애도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살 유가족의 고유한 경험적 특성들에 대하여 초점을 둔 연구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살 유가족의 애도에서의 경험적 특성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하여, 국내 자살 유가족의 애도와 관련한 이론과 모형의 개발 및 적합한 심리적 개입의 개발과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에서 진행된 자살 유가족의 애도에 관하여 축적된 여러 질적 연구 결과들을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 연구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종합하고자 한다. 질적 메타요약은 질적 연구종합(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의 하나로, 여러 질적 연구결과들을 축약 진술문으로 종합하고 각 축약문

별로 빈도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질적 연구영역에서 보다 공통적이고 중요성을 지닌 주제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Onwuegbuzie, 2003; Sandelowski, et al., 2007), 보다 높은 수준의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하여 질적인 결과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이론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Estabrooks, Field, & Morse, 1994, Jensen & Allen 1996, Sandelowski, et al., 1997). 이러한 질적 메타요약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진 여러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경험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자살 유가족의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은 무엇인가?
2.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방 법

질적 메타요약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종합(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의 한 방법인 질적 메타요약을 사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종합은 새로운 지식 및 이론의 도출, 응용을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질적 연구들의 결과나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이다(Driscko, 2019). 질적 연구종합은 크게 질적 메타종합(Qualitative Meta-synthesis)과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으로 분류된다. 질적 메타종합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발표된 여러 질적 연구들의 결

과를 체계적으로 식별 및 비교, 해석하는 방법이다(Levack, 2012). 질적 메타요약은 여러 질적 연구들의 결과에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들을 추출하고 그 빈도를 파악하여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Sandelowski et al., 2007). 질적 메타요약은 여러 연구들에 걸쳐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발견들을 반복 검증된 결과로서 특정 패턴 및 주제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정량적 논리에 근거한다(Sandelowski, 2001). 메타요약의 결과는 그 자체로도 체계적 검토의 최종 산물로서, 해석적인 질적 연구종합을 위한 경험적 연구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다(Sandelowski, 2001).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총 7명의 연구자가 팀을 이루어 진행을 하였다. 모든 연구진은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으로, 1인의 교수, 4인의 박사과정생, 2인의 석사과정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교수와 박사과정생은 애도 관련 연구 및 애도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 연구진은 대학원에서 질적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이수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 연구과정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인 교신저자에 의해 검토되었다. 질적 메타요약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연구 질문을 구체화한 후, 연구 질문의 해결과 관련

된 연구물 수집의 기준을 설정했다. 연구물 수집 기준에 따라 연구물을 수집한 다음에 6명의 연구자가 총 연구물을 각각 몇 편씩 나누어 연구 질문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을 추출했다. 축약 진술문은 각 연구에서 수집된 참여자들의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담긴 진술문이다. 추출된 축약 진술문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자가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다른 의미의 여러 진술문이 한 문장에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개의 진술문으로 나누었다. 정리된 진술문은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하였고, 비슷한 주제를 설명하는 진술문들은 군집화하였으며, 그 중 내용이 중복되는 문장은 하나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축약 진술문 별 빈도효과 크기와 강도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빈도효과 크기는 특정 진술문이 전체 연구물에서 추출한 총 진술문의 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빈도로 자주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 빈도효과가 크다는 것은 진술문의 내용이 재현 가능성이 높고 공통의 핵심적 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효과 크기는 특정 연구물에서 산출된 축약 진술문의 수가 총 연구에서 추출한 축약 진술문 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강도효과 크기를 산출하면 최종 결과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Sandelowski et al., 2007). 예를 들어, 몇몇 소수의 연구물이

$\text{각 축약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 = \frac{\text{해당 연구물에서 추출된 축약진술문의 수}}{\text{추출된 축약진술문의 총수}} \times 100$ $\text{각 연구의 강도효과 크기}(\%) = \frac{\text{해당 연구물에서 추출된, 빈도효과 크기 25 초과인 축약진술문의 수}}{\text{빈도효과 크기 25 초과인 축약진술문의 총수}} \times 100$

그림 1. 빈도효과 크기 및 강도효과 크기 산출 공식

높은 강도효과를 가지고 나머지는 낮은 강도 효과를 가질 경우, 특정 연구물의 결과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에 따라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빈도효과 크기와 강도효과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 1에 나타났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의 수집은 자살 유가족의 애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RISS, DBpia, KISS, E-article와 같은 국내 학술 DB 4개를 통하여 논문 검색이 수행되었으며, 국내 학술지 논문,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였다. 학술 DB 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자살 & 유가족 & 질적연구로, 관련 주제로 이뤄진 국내의 모든 연구들을 대상으로 논문 검색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물 포함기준은 1)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경우, 2) 질적 연구인 경우, 3) 자살자의 유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였으며, 학위논문의 결과를 학술논문으로 출간하여 중복된 경우,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을 우선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학술논문의 경우 지면상의 제한으로 참여자들과 관련한 상세한 질적 자료들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위논문 3편의 경우 공동 심의 과정(Peer Review Process)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 내에서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2018)을 통한 연구자료의 질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용연구물 배제 기준은 1) 애도 관련 자조 집단, 심리적 개입의 효과 검증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양적 연구인 경우, 3) 문헌 검토 및 메타 논문인 경우, 4) 조사대상에 자살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친구, 지인, 정신건강전문가가 포함된 경우이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총 25개의 연구물이 수집되었고, 해당 연구물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검색사이트에서 누락된 17편의 연구를 추가 확보하였다. 그 결과 총 42개의 질적 연구물이 일차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물 배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구물을 배제하였는데, 우선 자살을 시도했던 생존 노인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 1편, 분석 및 원문에 접근 불가능한 논문 2편, 국내 자살 유가족의 동향을 연구한 메타 연구 1편, 자살 외의 이유로 사별 경험을 한 유가족에 대한 연구 2편, 자살 유가족이나 일차 직계 가족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논문 10편, 일차 직계 가족이 아닌 조카를 자살로 잃은 여성 교역자의 애도 과정을 다루는 논문 1편, 애도 과정을 다루지 않거나 애도 관련 자조집단 및 심리적 개입의 효과 검증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논문 10편,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 중복 추가된 연구물 4편 중 학위논문만을 선택하여 학술논문 2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연구물의 수는 총 13편이었다.

자료 수집과정은 주 연구자가 지정된 검색어로 관련 연구물을 독립적으로 수집하였고, 두 명의 보조 연구자가 연구물들의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여 누락된 연구물을 추가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물의 최종 선정을 위하여 협업하였으며 불일치하는 지점은 상호 논의하여 해소하였다. 자살 유가족의 범위 선정 및 해당 연구물이 애도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지 여부에 대한 불일치가 있었는데, 자살자의 직계혈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조모임

과 심리적 개입 등 사후개입이 없이 애도 과정에 초점을 두고 탐색한 연구물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 명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자살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혈족의 애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었으며, 연구주제가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을 확인하는 것 외의 목적을 포함할 경우 애도 본연의 특성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요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딩 틀을 사용하여 연구물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질적 메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딩 틀은 저자, 출판년도, 출간유형, 학문분야, 연구목적, 사용된 이론,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으로 구성된다 (Sandelowsky et al., 2007).

연구의 질 평가

엄정한 질적 연구의 사용은 질적 메타종합 연구의 신뢰성에 있어서 중요하며, 질적 연구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Walsh & Downe, 2006). 본 연구는 개별 질적 연구물을 평가하는 도구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개발 및 표준화된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2018)를 사용하였다. CASP는 연구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ASP, 2018). 국내에서 이 도

표 1.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질문	연구물 평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연구의 목적 진술이 얼마나 명확한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 목적을 다루기에 연구 설계가 적절하였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모집계획이 연구목적에 적절하였는가?	y	y	y	y	y	y	y	y	y	n	y	?	y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자와 참가자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n	y	n	?	n	?	y	y	y	y	y	y	y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y	n	y	?	?	?	y	y	y	y	y	y	y
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결과물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예	9	9	9	8	8	8	10	10	10	9	10	9	10
강도효과 크기(%)	62	41	18	64	46	82	56	36	46	87	36	69	64

주. y=예, n=아니오, ?=답할 수 없음.

구를 사용한 질적 메타종합 연구는 Seo(2016), Woo(2016), Kim(201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 평가를 네 명의 연구자가 진행하였는데, 우선 영문 CASP (CASP, 2018)와 한국어 번안 CASP (Woo, 2016)를 숙지하였다. 그리고 각 연구 마다 두 명의 연구자가 담당하여 평정을 진행하였다. 평정 결과에 대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논의하였으며, 두 사람의 결과가 불일치할 때는 합의를 통하여 최종 평정하였다.

표 1은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에 대하여 전체 분석결과에서 각 연구물이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한 강도효과크기를 보여준다. C, J, F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물은 강도효과 크기 35.9%~69.23%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서 비교적 고른 편임을 알 수 있다. 즉, 표 1에서 제시된 빈도효과 크기 결과는 연구물들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이다. 우수한 질의 연구 중 하나인 J(87.18%)의 강도효과 크기가 가장 높았다. 강도효과 크기가 가장 낮은 연구물 C(17.95%) 역시 연구의 질이 우수한 편이었다. 연구물 사이에 기여도 차이가 목격되지만 연구의 질이 모두 8~10으로 높은 점수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분석결과 산출에 있어서 연구의 질이 낮은 연구물이 미친 영향이 매우 적다고 평가된다.

결 과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물의 수는 총 13편이다. 각 연구물의 특성을 정리해서 표 2로 제시하였다. 출간 유형을 살펴보면 학술논문

이 8개, 학위논문이 5개이다. 출간 연도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로 나타났으며 최근 출간된 연구물일수록 연구대상이 노년기 배우자, 청소년 자녀의 부모, 형제자매, 중년 기독교인 여성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문분야는 사회복지, 간호, 상담 등 다양했으며 사회복지, 가족복지 등 복지 관련 분야에서 출간된 연구물이 많았다.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의 자살 이후 남은 유가족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었다.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론은 근거이론 연구가 2편, 현상학적 연구가 5편,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가 4편, 사례연구가 2편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식을 적용한 연구물의 비중이 높았다.

연구물들의 표본은 자살자와의 관계, 사별 기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자살자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모집하여 진행한 연구도 있었고(연구물 D, E, F, G, J, L, M), 배우자 대상 연구(연구물 A, K), 부모 대상 연구(연구물 B, H, I), 형제자매 대상 연구(연구물 C) 등 일부 관계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참여자는 총 97명이었다. 남자는 25명, 여자는 72명이었으며 나이는 20-70대로 다양하였다. 고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26명, 부모 36명, 자녀 12명, 형제자매 23명이었다. 사별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39년으로 범위가 넓었으며, 개별 연구물 표본 내에서의 사별 기간도 그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다.

표 2. 분석대상 연구물 특성

연구물	출간 유형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표본 특성
A	학술 논문	2016	정신건강 사회 복지학	농촌지역 노년기 자살자 배우자들의 상실경험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 총 14명(남 3명, 여 11명) - 평균연령 71세(60대 36%, 70대 29%) - 배우자 14명 - 면담 당시 사별 기간 평균 10개월
B	학술 논문	2012	사회 복지학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 총 12명 - 평균연령 64세 - 아버지 4명, 어머니 8명 - 면담 당시 사별 기간 10개월~16년(3년 이내 7명, 10년 이후 5명)
C	학위 논문	2015	특수심리 치료	자살자의 형제자매의 애도 경험 및 자살유가족 삶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요인 탐색	사례연구	- 총 3명 (여 3명) - 30대 1명, 40대 2명 - 사별 기간: 8개월, 7년, 13년
D	학술 논문	2015	가족 복지학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 과정 경험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 탐색	현상학적 연구	- 총 6명(남 1명, 여 5명) - 20-50대 - 엄마 1명, 딸 2명, 누나 2명, 동생 1명 - 사별기간 8개월~15년
E	학술 논문	2010	사회 복지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의 본질구조 탐색. 자살자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근거자료 구축	현상학적 사례연구 (Van-manen의 현상학적 방법과 Creswell의 사례연구방법 결합)	- 총 5명(남 4명, 여 1명) - 배우자 2명, 자녀 2명, 남동생 1명 - 사별 기간 3년 이상
F	학술 논문	2018	상담 코칭학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과 그 과정에서 영성과 종교 공동체의 영향과 역할 탐색. 기독교 자살 유가족을 위한 체계적 돌봄 전략 모색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	- 총 11명(남3, 여8) - 20-68세 - 개신교인 - 사별기간 1년~39년
G	학술 논문	2010	정신건강 사회 복지학	자살 유가족의 생존 경험 탐색을 통해 자살 유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과 연구 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시	Cohen 외(2000)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의한 5단계 분석	- 총 3명(남 2명, 여 1명) - 3인 유가족(남편, 딸, 아들) - 사별 기간: 11개월

표 2. 분석대상 연구물 특성 (계속)

연구물	출간 유형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표본 특성
H	학술 논문	2017	정신건강 사회 복지학	청소년 자녀를 자살로 보낸 부모의 사별 후 5~7년 간의 경험 탐색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 총 6명(남 2명, 여 4명) - 5-60대 - 부모 6명 - 사별기간 4년 8개월~6년 4개월
I	학술 논문	2010	가족 복지학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 탐색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 총 5명(여 5명) - 농촌지역인 W군 거주 여성 - 어머니 5명
J	학위 논문	2005	간호학	자살 유가족의 사별 경험 및 사별 과정의 탐색을 통한 이론 구축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 총 10명(남 1명, 여 9명) - 30-60대 - 부모2명, 배우자2명, 형제4명, 자녀3명 - 사별기간 4개월-20년
K	학위 논문	2012	심리학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중년 기독교인 여성의 경험의 본질과 의미 탐색	Giorgi의 현상학적 4단계	- 총 5명(여 5명) - 중년 기독교, 천주교인(43-62세) - 아내 5명 - 사별기간 6개월~3년 미만
L	학위 논문	2014	기독교 상담학	자살 유가족의 극복과정의 인과적 조건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심리 현상 및 극복 경험을 촉진시키는 중재적 조건과 대처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자살 유가족의 위기와 스트레스 극복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정립하는 것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 총 10명(남 2명, 여 8명) - 20대-60대 - 배우자 2명, 부모 3명, 자녀 1명, 여동생 4명 - 기독교 6명, 천주교 2명, 무교 2명 - 사별기간 9년-21년
M	학위 논문	2015	기독교 상담학	자살생존자의 심리, 신체화, 심리사회적 경험, 극복을 위한 생존 방식을 심층적으로 파악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 총 9명(남3명, 여6명) - 20대-70대 - 사별기간 3년-28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의 애도를 다룬 질적 연구 13편에 대해 질적 메타 요약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총 948개의 결과 진술문을 추출하였고 주제가 유사한 결과 진술문들을 묶어 총 50개의 축약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주제 분류 시에는 애도 과정을 다룬 기존 연

구들과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의 진단 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진술문들을 별도의 주제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산출된 축약 진술문과 축약 진술문의 빈도 효과 크기는 Worden(1991)의 애도의 과업 모형(Task model)에 따라 분류하여 표 3으로 제시하였다. Worden은 애도 과정이 일련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주어진 과업들을 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애도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보았다. 과업은 총 4가지로 각각의 과업에서 애도자는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고(to accept the reality of the loss),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고(to work through the pain of grief),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며(to adjust to an environment, 고인과 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to emotionally relocate the deceased and move on with life)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 세 번째 과업인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는 고인의 빈자리를 깨닫고 이를 대신하려는 외적 적응과 사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내적 적응, 삶과 죽음 등 실존적 문제를 탐색하는 영성적 적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Worden의 모형은 애도 상담자 및 치료자들의 경험적 자료들을 개념화하고 기존의 애도 모형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임상 장면에서의 실제적인 자료들을 반영(Wright & Hogan, 2008)하고 있고, 기존의 단계(stage)나 절차(phase)모형과 같이 애도 과정이 일방향적으로 완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되고 재경험될 수 있다는 애도 과정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Rothaupt & Becker, 2007), 애도

과정은 개인의 대처 양식과 개인이 처한 상황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요인에 의하여 상이하게 경험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다문화적인 관점(Doka, 1996)을 지니고 있는 모형이다. 이와 같이 Worden의 모형이 제시하는 애도과정의 역동성과, 유연성, 문화적 다양성 등은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하고 이질적일 수 있는 애도 경험을 통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모형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통합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주의 문화에 기반하여 개발된 Worden의 모형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의 자살유가족들의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이론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이외에도 Worden의 4가지 과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애도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또는 애도 과정과 관련된 매개요인에 대한 내용의 축약 진술문들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축약 진술문은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빈도효과 크기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애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진술의 경우 애도 과정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며 고통이 경감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축약 진술문들 모두 빈도효과 크기가 50% 이하로 나타났다. 애도 과정 관련 매개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지지자원, 사회문화 및 종교, 전문적 도움 또는 자조 모임이 있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으로는 “자살오명화로 인해 자살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적으로 위축 및 고립되며 애도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의 빈도효과 크기가 85%로 전체 축약 진술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효과를 보였다. 지지자원의 경우 자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가까운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가

표 3. Worden(1991)의 애도의 과업 모형(Task model)에 따른 축약진술문 분류

애도 과정 일반 및 관련 매개요인 (해당 연구물)	빈도효과 크기(%)
종합적 진술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애도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 (D, E, G, I, J, M)	46
시간이 지나며 상처가 회복되었다. (H, I)	15
여러 과제에 걸쳐 애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대인관계 지지 자원	
가족, 친지 및 주변인(사회적 관계망)의 도움 및 태도가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 (A, B, C, D, F, H, I, J, L)	69
유가족들은 지지 자원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주변인들의 행동/태도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망하기도 하였다. (A, B, D, E, F, G, J, L, M)	69
사회문화/종교	
자살오명화로 인해 자살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적으로 위축 및 고립되며 애도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A, B, D, E, F, G, I, J, K, L, M)	85
사회적 편견과 스스로 갖는 낙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A, B, D, E, J, M)	46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적 시각으로 인해 고인에 대해 걱정하였다. (F, J)	15
전문적 도움/자조 모임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이들도 있었고 상담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들도 있었다. (A, D, F)	23
자조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에 회의적인 이들도 있었다. (B, F)	15
애도 과정 내 각 과업과 관련된 노력 (해당 연구물)	빈도효과 크기(%)
과업1. 상실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loss	
고인의 죽음을 원인을 찾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다. (A, D, E, F, G, J, K, L, M)	69
고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B, D, E, G, H, I, J, L, M)	69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고 당황스러웠으며 혼란스러웠다. (A, F, G, I, J, L, M)	54
고인의 죽음을 원인을 찾아 끝없는 질문을 하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D, E, F, G, J, L)	46
과업2.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To work through the pain of grief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했거나 죽음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죄책감 혹은 무력감을 느꼈다. (A, B, D, F, G, H, I, J, K, L, M)	85
자살 사건 이후 정신적/심리적 고통(심리적 외상 경험, 우울감, 괴로움 등)을 경험하였다. (A, B, E, F, G, H, I, J, L, M)	77
자살 사고/자살 행동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실제로 시도를 했다. (B, D, E, F, H, J, K, L, M)	69
고인 및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대상,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분노하기도 했다. (A, D, F, G, I, J, K, L, M)	69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A, B, D, F, G, J, K, M)	62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이는 때로 애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A, D, E, F, G, J, L, M)	62
고인의 빈자리를 느끼고 외로움, 쓸쓸함, 상실감을 느꼈다. (A, D, E, F, G, J, M)	54
공포와 두려움, 불안을 느꼈다. (A, E, G, I, J, K, L)	54
고인 또는 죽음과 관련된 사고/감정을 억압하려고 했다. (A, E, F, G, J, L, M)	54
고인을 그리워한다. (A, D, F, G, H, J, K)	54

표 3. Worden(1991)의 애도의 과업 모형(Task model)에 따른 축약진술문 분류

(계속)

애도 과정 내 각 과업과 관련된 노력 (해당 연구들)	빈도효과 크기(%)
과업2.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To work through the pain of grief	
자살의 가족력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조심하였다. (A, D, F, G, H, K, M)	54
자살 사건 이후 신체 증상(의학적 질환 및 신체화, 수면 및 식욕 장애)을 경험하였다. (A, F, H, I, K, L, M)	54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강렬한 슬픔(비에)을 느꼈으며,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기도 하였다. (A, D, F, J, L, M)	46
사별 후 한동안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E, F, H, I, J, M)	46
가족들이 고인 및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A, D, F, G, J, K)	46
고인에 대해 연민, 안쓰러움을 느낀다. (A, F, I, J, K)	38
술을 마시거나 다른 활동에 몰두하여 고통/슬픔을 잊으려고 했다. (B, E, I, J, L)	38
고인의 죽음 이후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F, J, L, M)	31
고통/슬픔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게 된 후, 아픔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D, J, K)	23
고인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환경/상황에서 슬픔,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F, J, M)	23
고인의 죽음 이후에 존재 자체가 죄스럽고 행복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다. (F, M)	15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도감/해방감을 느꼈다. (A, M)	15
과업3.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 To adjust to an environment in which the deceased is missing	
외적 적응 External adjustment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 및 책임감으로 고통을 견뎠다. (A, B, C, D, F, G, I, J, L)	69
고인의 죽음 이후 생계유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애도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A, F, I, J, L, M)	46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 문제가 드러나며 가족들이 서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D, F, H, J, M)	38
고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거나, 새로운 역할이나 정체성을 맡게 되었다. (E, F, G, L)	31
내적 적응 Internal adjustment	
고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을 수용하게 되었다. (A, C, D, E, F, H, J, K, L, M)	77
개인의 정체성 및 세상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었고 절망감, 허무감을 느끼며 삶의 의욕 및 목적을 잃었다. (A, B, D, E, F, I, J, K, L, M)	77
고인과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애도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B, D, E, I)	31
영성적 적응 Spiritual adjustment	
고인의 죽음 이후 종교적 믿음이 더 강해졌으며 종교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C, D, F, J, L)	38
종교가 있었을 경우, 종교 및 종교공동체에 대한 회의감 혹은 죄책감을 경험한다. (F, M)	15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D, F)	15
과업4. 고인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하는 것 To emotionally relocate the deceased and move on with life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B, C, F, H, J, L)	46
자기 인식이 확장되며 스스로를 수용 및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B, C, D, H, J, L)	46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과의 관계(연결고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B, G, H, I, M)	38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C, F, G, J, L)	38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 관계에 더 헌신하게 되었으며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C, D, L)	23

죽, 친지 및 주변인의 도움 및 태도가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 “유가족들은 지지 자원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주변인들의 행동/태도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망하기도 하였다.”와 같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축약 진술문이 있었다. 두 진술문 모두 빈도효과 크기가 69%였는데 이는 개인의 애도 과정에 사회관계적 맥락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가지 과업 중에서는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업 2)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이 가장 많았고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업 1)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이 가장 적었다. 과업별 축약 진술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업인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하는 축약 진술문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었다. 이 영역에서 빈도효과 크기가 가장 높았던 진술문은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다.”와 “고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로 고인의 죽음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부인하려는 태도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축약 진술문들의 빈도효과 크기는 69%로 전체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 순위로는 세 번째에 해당하였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충격, 당황스러움, 혼란스러움의 감정을 보고한 진술문과 고인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진술문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자살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업인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는 다양한 유형의 고통 경험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있었고 과업과 관련된 어려

움으로는 고통의 회피,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 빈도효과 크기가 가장 컸던 진술문은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했거나 죽음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죄책감 혹은 무력감을 느꼈다.”로 빈도효과 크기는 85%였으며 이는 전체 축약 진술문 중에서도 가장 컸다. 그 외에도 우울감,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 섭식 및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경험, 자살 관련 욕구, 원망과 분노, 외로움과 상실감, 공포와 불안감, 그리움 등에 대한 축약 진술문이 빈도효과 크기 5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유가족들이 애도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 감정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업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이는 때로 애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고인 또는 죽음과 관련된 사고/감정을 억압하려고 했다.”, “가족들이 고인 및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가 각각 62%, 54%, 46%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 과업에서 죄책감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가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는데 가족들 간에 사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것은 애도 과정에서 개인의 슬픔을 다루는 것보다 가족,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이는 대만에서 수행된 Tzeng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Tzeng 등(2010)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자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문화권에서는 고

인의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의 체면을 상하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보다 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세 번째 과업인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에서는 내적 적응 관련 축약 진술문인 “고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을 수용하게 되었다.”와 “개인의 정체성 및 세상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었고 절망감, 허무감을 느끼며 삶의 의욕 및 목적을 잃었다.”의 빈도효과 크기가 77%로 가장 높았다. 중요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자신의 삶 또한 끝나거나 실패했다고 여겨 정체성 및 가치관에 큰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적 적응에서는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 및 책임감으로 고통을 견뎠다.”라는 축약 진술문이 69%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고 그 외에도 축약 진술문 대부분이 가족 관계와 관련된 적응 시도 또는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자살 유가족은 애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애도에 힘쓰기보다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의 회복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개인의 애도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영성적 적응에서는 사별 이후 종교에 더욱 의지하게 되거나 회의감 또는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축약 진술문들이 있었으나 빈도효과 크기가 모두 38% 이하였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에게 공통된 애도 경험으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영역에서 가장 빈도효과 크기가 컸던 축약 진술문은 “고인의 죽음 이후 종교적 믿음이 더 강해졌으며 종교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로 자살 유가족들 중 일부는 종교적 활동 혹은 절대자애의 의지를 통해 고인이 없는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과업인 고인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하는 것에 속하는 축약 진술문들은 빈도효과 크기가 모두 50% 이하로 다른 과업에 비해 비교적 덜 공통된 애도 경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업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자기 인식이 확장되며 스스로를 수용 및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가 46%로 가장 높았다. 자살 유가족들은 다른 자살 유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사가 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내적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계기를 마련하여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의 반응과 과정을 종합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에서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자살 유가족들의 경험을 주제로 진행된 국내 연구들을 수집하여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는 총 13편으로 추출된 진술문은 948개, 유사한 주제에 따라 묶인 축약진술문은 50개였고, 이를 Worden의 과업 모

형에 따라 분류하여 4가지의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과업 1 ‘상실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과업 2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과업 3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 과업 4 ‘고인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하는 것’에 따라 축약 진술문들을 분류하였고, 그 외에 애도 과정과 관련한 일반적 진술들과 매개요인들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메타요약을 통한 분석과 분류작업을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빈도효과 크기가 높은 축약 진술문, 즉 보다 공통적인 애도 과정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떠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을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논의점을 다음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차용한 Worden의 과업 모형 중 과업 2인 ‘애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했거나 죽음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죄책감 혹은 무력감을 느꼈다.’ 축약 진술문은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이 가족의 자살에 대하여 죄책감과 무력감의 정서를 가장 높은 빈도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구권에서 진행된 자살 유가족 애도 경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Sveen & Walby, 2008). 이 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이 다른 유가족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경험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기존 서구권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죄책감과 무력감이라는 정서가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이 높은 빈도로 경험하는 정서적, 인지적 반응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고인의 자살과 같은 개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속성, 선택, 혹은 결정에 의한 결과에서 찾기 보다는 관계적 특성이나 일차 집단의 영향에서 찾는 상황지향적 편향(Situationalist Bias)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의 자살 사건이라는 부정적 결과와 실패에 대하여 외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과 같은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겸양 편향(Modesty Bias) 등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들은 자기 문제의 발견, 개선과 노력을 강조함에 따라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제 소재를 개인에게 두고 개인에게 높은 책임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Cho, 2008).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자살 유가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자살 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이라는 부정적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가족이라는 관계와 자신의 역할이 가지는 영향력을 과대하게 추정하여 필요 이상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과대한 영향력이 좌절된 만큼 그 결과 무력감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분류된 축약 진술문 중 사회문화/종교 하위유형에 포함되는 ‘자살오명화로 인해 자살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적으로 위축 및 고립되며 애도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와 ‘사회적 편견과 스스로 갖는 낙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축약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 사실을 주위 관계에 알리지 못하고 수치심을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살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 가족의 자살 사실에 대한 은폐와 관련하여서는 서구권에서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보고(Billey, et al., 1999; Cvinar, 2005; Jordan, 2008; Range, et al., 1990; Shields, et al., 2017; Sveen, & Walby, 2008)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살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범문화적인 특성이라 여겨진다. 비록 자살유가족의 수치심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보고되는 경험이기도 하나, 이는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기저요인들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회문화적 맥락이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특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치심은 외부에 의한 평가·판단, 공적인 노출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로 연구된 바가 있다(Smith, et al., 2002). 특히 유사한 정서인 죄책감과 비교할 때, 죄책감이 개인적(private) 정서로서 사건을 행동(behavior)의 잘못으로 귀인하여 이를 회복하고 보상하고자 반응하도록 하는 반면 수치심은 공적(public) 정서로서 사건을 자기(self)의 잘못으로 귀인하여 은둔하거나 도피하도록 유도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Tangney, et al., 2007). 수치심이 외부참조에 의해 유발되는 특성을 가진 정서라면 관계의 조화와 응집력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성이 높은 정서로서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사회와 관계로부터 보다 고립되고 단절되는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개변인 중 하나인 지지자원에 속하는 ‘가족, 친지 및 주변인(사회적 관계망)의 도움 및 태도가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와 ‘유가족들은 지지 자원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주변인들의 행동, 태도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망하기도 하였다.’는 축약 진술문들 역시 높은 빈도로 보고되는 경험이었다. 자살 유가족들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실 이후의 심리적인 고통과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각하면서도 애도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줄 사회적 지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험한

다는 점(Barrett & Scott, 1990; Clark, 2001; Dyregrov, et al., 2003, Range, & Calhoun, 1990; Séguin, et al., 1995; Sveen, & Walby, 2008)은 서구권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된 결과이다. 자살 유가족의 애도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기능은 범문화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이 집단의 관심과 소속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고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같이 관계 지향적이며 집단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스페인 문화권의 자살 유가족들의 애도를 주제로 한 Carlin(1993)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문화권의 자살 유가족들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분화적인 대인관계 방식을 맺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자살 유가족에 비해 기존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바탕으로 이후의 애도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 보다 빠른 회복을 보고한 바가 있다. 특히 서구권의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고립감과 죄책감과 관련하여서 스페인 문화권의 자살 유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서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관계중심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이 제 기능을 하였을 때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지는 부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고 정적인 측면들은 최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우 관계지향적인 집단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급속한 물질적 부의 확대와 성장을 거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일차 집단인 가족들과 사회적 관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화됨에 따라 실제 개인은 충분한 대인관계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전문가의 도움 등의 대인관계 지지자원들은 본 연구에서의 매개 변인 중 전문적 도움/자조모임 하위유형에 포함되는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이들도 있었고 상담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들도 있었다’와 ‘자조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에 회의적인 이들도 있었다’ 축약 진술문의 내용과 같이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진다. 그 결과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은 집단주의 문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순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유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역기능에 대해서는 노출되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자원들은 충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서 언급한 집단주의 문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순기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의 과업 모형 중 과업 3인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에 분류된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 및 책임감으로 고통을 견뎌다.’ 축약 진술문을 살펴보면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가족의 자살이라는 외상 사건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계지향적이고 상호연계와 연결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살 유가족들의 죄책감과 무력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촉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써 영향을 주는 동시에 관계에서의 헌신, 희생, 책임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특징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업 모형 3 단계 중 ‘개인의 정체성 및 세상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었고 절망감, 허무감을 느끼며 삶의 의욕 및 목적을 잃었다’ 축약 진술문에서와

같이 회복에 있어서 삶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삶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살 유가족들은 본 연구에서의 과업 모형 중 과업 2인 ‘고인 및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대상,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분노하기도 했다.’ 축약 진술문처럼 높은 빈도의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일차적 감정들이 내적으로 수용되고 통합되지 않았을 때 개인은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이차적 정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Linehan, et al., 2007) 분노와 같은 분화적 정서(Differentiating Emotion)는 적극적으로 억제되는 집단주의 문화 맥락 내에서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분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분노 감정과 관련하여 그들이 이 분화적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고 수용하며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Worden의 과업 모형 중 과업 4인 ‘고인과 정서적으로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하는 것’에 포함된 축약 진술문들의 수나 빈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를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이 고인과의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삶의 단계로 확장되는 경험이 서구권 자살 유가족들에 비해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orden의 과업 모형 중 과업 4는 최근에 연구자인 Worden에 의해 추가된 단계로서 아직까지 충분한 검증과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개념의 정리와 구

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뤄진 연구들은 최근 서구권에서와 같이 자살 유가족들의 새로운 관계와 삶의 단계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비중을 두어 탐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참여자의 반응들이 수집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빈도가 높지 않은 내용들이 실제 낮은 확률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살 유가족들의 애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자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 검토한 Sveen과 Walby(2008)는 설문지 등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자살 유가족들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의 애도모형으로 조직화함으로써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의 경험을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지어 검토함으로써 애도 과정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이 가지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권에서 연구된 애도 이론과 모형에 맞추어 자살 유가족들의 경험을 분류함으로써, 기존의 이론과 모형이 실제 한국의 유가족들의 애도 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향후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및 개입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예컨대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이나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였을 때 상담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유가족들의 죄책감과 무력감이라는 정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정서가 유가족들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지는 영향력을 과대하게 추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 사회적 시각을 과잉 의식하고 부정적일 것이라 가정하여 수치심을 경험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보호요인인 대인관계라는 자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 애도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전문적 지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점, 유가족들이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내적으로 고인에 대한 분노 정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이뤄진 13편의 자료들 중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위논문 3편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들이 분석 대상에 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CASP를 사용한 연구의 질 평가과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으며, 연구 결과 또한 학술논문들과 이질적이지 않아 자료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나, 이는 학위논문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살유

가족의 애도경험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학술논문으로 연구대상을 국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살 유가족들의 경험들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나, 실제로 한국과 다른 문화권을 직접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연구 주제로 진행된 서구권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연구방법인 질적 메타요약을 통하여 서구권 문헌들을 종합하지 못한 것은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 고유의 특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에 대한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진 비교문화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자살 유가족들의 애도 경험과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서구권 각각의 문화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코치학, 특수심리치료학, 사회복지학, 가족 사회복지학, 정신건강 사회복지학, 간호학, 기독교상담학 등의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이뤄진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이 이루어졌는데,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동일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학술 분야가 가지는 성격의 차이가 연구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심리학 분야에서 자살 유가족에 관한 질적 연구의 수가 제한적인바 여러 학술 분야의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학술분야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 덧붙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몇 가

지 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노와 같은 분화적 정서의 표현이 억제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이 가족의 자살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는 분노 감정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들이 고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Worden의 과업 4인 새로운 관계와 삶으로 확장되는 경험이 서구권에 비해 적은 것이 한국 자살 유가족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인지, 실시된 연구들이 초점을 두었던 연구문제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라는 측면 외에도 자살 유가족의 애도 경험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유가족마다 자살에 대해 가지는 반응의 종류와 빈도, 강도에서의 차이에는 유가족 개인들의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심리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상담자와 내담자, 호소문제나 증상 등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없듯이 고인과 자살 유가족 간의 관계, 고인의 자살에 의한 유가족들의 경험과 과정에 미치는 요인들도 보다 복잡하고 상호적이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ailey, S. E., Kral, M. J., & Dunham, K. (1999).

- Survivors of suicide do grieve differently: Empirical support for a common sense proposi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3), 256-271.
- Barrett, T. W., & Scott, T. B. (1989). Development of the Grief Experience Questionnair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9, 201-215.
- Barrett, T. W., & Scott, T. B. (1990). Suicide bereavement and recovery patterns compared with nonsuicide bereavement patter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1), 1-15.
- Beder, J. (2004). Lessons about bereavement. *Journal of Loss and Trauma*, 9, 383-387.
- Boelen, P. A., & van den Bout, J. (2003). Gender differences in traumatic grief symptom severity after the loss of a spouse.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6(3), 183-198.
- Breslau, N., Kessler, R. C., Chilcoat H. D., Schultz, L. R., Davis, G. C., & Andresku, P. (1998).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community: The 1996 Detroit area survey of traum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7), 626-632.
- Catlin, G. (1993). The role of culture in grief.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2), 173-184.
- Chang, H. A. (2009). An empirical review of complicated grief.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8(2), 303-317.
- Chentsova Dutton, Y., & Zisook, S. (2005). Adaptation to bereavement. *Death Studies*, 29(1), 877-903.
- Cho, G. H. (2008). The confucian origin of the East Asian collectivism. *Issues in East-Asian Philosophy*, 1, 178-190.
- Clark, S. (2001). Bereavement after suicide-How far have we come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Crisis*, 22(3), 102-108.
-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8). CASP Qualitative Checklist. Available at: <https://doi.org/casp-uk.net/casp-tools-checklists/>. Accessed: 2019.12.05. Accessed.
- Cv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41(1), 14-21.
- Doka, K. J. (1996). Coping with life-threatening illness: A task model.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32(2), 111-122.
- Drisko, J. W. (2019). 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 An appreciative and critical introduction. *Qualitative Social Work*, 1473325019848808.
- Dyregrov, K., Nordanger, D., & Dyregrov, A. (2003). Predictors fo psychosocial distress after suicide, sids and accidents. *Death studies*, 27(2), 143-165.
- Estabrooks, C. A., Field, P. A., & Morse, J. M. (1994). Aggregating qualitative findings: an approach to theory develop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4(4), 503-511.
- Han, H. S., Choi, W. J., Huh, S., Heo, H. J., & Chae, J. H. (2016). Understanding of complicated grief.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6(3), 383-401.
- Hogan, N. S., Greenfield, D. B., & Schmidt, L. A.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 *Death Studies*, 25, 1-32.
- James, R. K., & Gilliland, B. E.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4th.). Belmont, CA:

- Brooks/Cole Thomson Learning.
- Jensen, L. A., & Allen, M. N. (1996).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finding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553-560.
- Jordan, J. R. (2008). Bereavement after suicide. *Psychiatric Annals*, 38(10), 1-6.
- Kim, B. C. (2010).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f suicide on suicidal people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General*, 18(1), 41-63.
- Kim, M. S. (2010). Philosophical studies on cogni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s death. *Journal of Confucianism Research Institute*, 22(1), 73-108.
- Kim, M. S. (2018). The experience of recovery from severe mental illness: A qualitative meta-summary. *Social Science Studies*, 34(1), 85-110.
- Kim, W. B., & Pang, S. (2013). Approach of theology of medicine to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for the healing of survivors. *Health and Social Science*, 34, 37-60.
- Kim, Y. A., & Byeon, J. W. (2016). Trends and challenges on research of Korean studies in suicide surviv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43-63.
- Kim, Y. B., & Lee, J. S. (2006). Experiences of subliming of the bereaved family due to suicid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46-458.
- Klass, D., & Goss, R. (1999). Spiritual bonds to the dead in cross-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religion and modern grief. *Death Studies*, 23, 547-567.
- Kissane, D. W. (2004). *The challenge of discrepancies in values among physicians, patients, and family members*. Jon Wiley & Sons.
- Lee, K. M., & Choi, Y. S. (2015). Grief Process of family members bereaved by suicide. *Family and Family Therapy*, 23(4), 655-685.
- Lee, M. H.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focusing on christian suicide survivors'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4), 163-199.
- Levack, W. M. (2012). The role of qualitative metasynthesis in 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y Reviews*, 17(6), 390-397.
- Linehan, M. M., Bohus, M., & Lynch, T. R. (2007).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pervasive emotion dysregulation.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Guilford Pres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elhem, N., Day, N., Shear, M. K., Day, R., Reynolds, C., & Brent, D. (2003).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mong adolescents exposed to a peers suicide. *Journal of Loss and Trauma*, 9, 21-34.
- Niemeier, J. P., & Burnett, D. (2001). No such thing as "uncomplicated bereavement" for patients in rehabilitati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3, 645-653.
- Onwuegbuzie, A. J. (2003). Effect sizes in qualitative research: A prolegomenon. *Quality and Quantity*, 37(4), 393-409.
- Park, H. K., & Kim, S. A. (2019). A meta-analytic review of Koreans' cultural self-orientation: Focusing on collectivism and

- individualism.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42(3), 5-37.
- Parkes, C. M. (1993). Bereavement. In D. DOYLE, G. C. W. Hanks, & N. MacDonald (Eds.),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 (pp.663-678).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es, C. M. (2001). Bereavement. In; Doyle, D., Hanks, G., Cherny, N. I., Calman, K. S. editors.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 Oxford New York.
- Prigerson, H. G., Frank, E., Kasl, S. V., Reynolds, C. F., Anderson, B., Zubenko, G. S., Houck, P. R., George, C. J. and Kupfer, D. J. (1995) Complicated grief and bereavement-related depression as distinct disorders: preliminary empirical validation among in elderly bereaved spous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22-30.
- Prigerson, H., & Jacobs, S. (2001). Traumatic grief as a distinct disorder: A rationale, consensus, criteria, and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rigerson, H. (2005). Complicated grief: When the path of adjustment leads to a dead-end. *Bereavement Care*, 23, 38-40.
- Range, L. M., & Calhoun, L. G. (1990). Responses following suicide and other types of death: The perspective of the bereaved. *OMEGA*, 21(4), 311-320.
- Robben, A. C. G. M. (2004). Death and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In A. C. G. M. Robben (Ed.), *Death, Mourning and Burial: A Cross-Cultural Reade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Rosenblatt, P. C., Walsh, R. P., & Jackson, D. A. (1976). *Grief and Mourn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Have, Yale, HRAF.
- Rosenblatt, P. C. (2008). Grief across culture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 M. S. Stroebe, R. O.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p. 207-22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bin, S. S., Malkinson, R., & Witztum, E. (2012). *Working with the Bereaved: Multiple Lenses on Loss and Mourning*. Routledge.
- Ruenson, B., & Asberg, M. (2003). Family history of suicide among suicide victi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 1525-1526.
- Sandelowski, M., Docherty, S., & Emden, C. (1997).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4), 365-371.
- Sandelowski, M. (2001). Real qualitative researchers do not count: the use of numbers in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4(3), 230-240.
- Sandelowski, M., Barroso, J., & Voils, C. I. (2007). Using qualitative metasummary to synthesiz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scriptive finding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1), 99-111.
- Seo, E. Y. (2016). *Adaptation experience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 qualitative Meta-Syn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pook Nat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Séguin, M., Lesage, A., & Kiely, M. C. (1995). Parental bereavement after suicide and accident: A comparative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4), 489-498.
- Shear, M. K., & Smith-Caroff, B. S. (2002). Traumatic loss and the syndrome of complicated grief. *PTSD Research Quarterly*, 13, 1-8.
- Shields, C., Kavanagh, M., & Russo, K. (2017).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of the bereavement process following suicide.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4(4), 426-454.
- Smith, R. H., Webster, J. M., Parrott, W. G., & Eyre, H. L. (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 Stroebe, M., & Schut, H. (2010).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A decade 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4), 273-289.
- Sveen, C. A., & Walby, F. A. (2008). Suicide survivors' mental health and grief reactions: A systematic review of controlled studi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1), 13-29.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oedter, L. J., Laser, J. N., & Alhadeff, J. M. (1988). The Perinatal Grief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3), 435-449.
- Tzeng, W. C., Su, P. Y., Chiang, H. H., Kuan, P. Y., & Lee, J. F. (2010). The invisible family: A qualitative study of suicide survivors in Taiwa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2(2), 185-198.
- Tzeng, W. C., Su, P. Y., Tzeng, N. S., Yeh, C. B., Chen, T. H., & Chen, C. H. (2010). A moral life after a suicide death in Taiw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7), 999-1007.
- Walsh, D., & Downe, S. (2006). Appraising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Midwifery*, 22(2), 8-19.
- Woo, J, Y. (2016). *The experiences of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disabled: A qualitative Meta-Syn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pook Nat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ling and grief therapy (2nd Ed.)*. Springer.
- Wright, P. M., & Hogan, N. S. (2008). Grief Theories and Models.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10(6), 350-35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차원고접수 : 2020. 03. 17.

2차원고접수 : 2020. 06. 12.

3차원고접수 : 2020. 10. 07.

최종게재결정 : 2020. 10. 16.

The Grief Experience of Suicide Survivors: A Qualitative Meta-Summary

Sungkeun Yoon Yeoul Han Seungjin Lee
Eunbyeol Lee Joohee Lee Sojeong Im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tegrate the findings of qualitative studies pertaining to the grief experiences of suicide survivors using meta-summary techniques. Qualitative meta-summary techniques include: 1) extraction of relevant statements of findings from each research 2) reduction of these statements into abstracted statements, and 3) calculation of frequency effect size. In this study, a total of 13 related stud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a total of 948 statements, and 50 abstracted statements were generated. These statem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processes based on Worden's task theory. Discussed were the possible roles of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manifestation of the grief experiences presented by the abstracted statements with high frequency effect size.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and methods of utilization were proposed.

Key words : suicide survivors, grief experience, qualitative meta-summary, Worden's Task Model, socio-cultural factors

부 록

부록 1. 분석대상 연구물 리스트

- 김가득 (2012).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4(4), 5-29.
- 김가득 (2017). 청소년 자녀를 자살로 보낸 부모의 사건 이후 5~7년의 경험.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5(2), 5-32.
- 김벼리 (2012). 남편을 자살로 잃은 중년 기독교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분 (2005).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분 (2014). 자살 유가족 위기와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아 (2015). 자살생존자의 삶의 경험.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03-231.
- 엄은주 (2015). 자살로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김가득 (2010).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29, 115-148.
- 이경미, 최연실 (2015).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4), 655-686.
- 이근무, 김진숙 (2010).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09-134.
- 최명민, 김가득, 김도윤 (2016). 자살로 사별한 노년기 배우자의 상실경험: 농촌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1), 76-105.
- 최주희 (2018).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의 사별 경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2), 213-258.